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0차 정책토론회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2022. 12. 17.(토) 10:00 - 12:3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유튜브 채널 육아정책연구소TV



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 ◎ 일 정 : 2022. 12. 17.(토) 10:00 ~ 12:3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 주 최 : 육아정책연구소

시간	세부 일정		
9:40~10:00	I 등록 및 준비 I		
10:00~10:10	I 개회식 I 사회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I 발제 및 토론 I			
10:10~10:30	발제 1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 학부모, 유보통합을 말하다!		
10:30~12:25	I 교사, 유보통합 집담회 I 퍼실리테이터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Group 1 ▶ 윤지혜 교사 (운담초 병설유치원) ▶ 김원배 교사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 이현령 교사 (한양제일 유치원) ▶ 최정희 교사 (유정 유치원) ▶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양도초 병설유치원) ▶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전주 유화학교) </td><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50%;"> Group 1 ▶ 함미영 교사 (알프하임 어린이집) ▶ 김윤진 교사 (홍제 어린이집) ▶ 김민지 교사 (아름다운 어린이집) ▶ 김은영 교사 (파랑새 어린이집) ▶ 최 철 유아특수교사 (시립숲속 어린이집) ▶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초록 어린이집) </td></tr> </table>	Group 1 ▶ 윤지혜 교사 (운담초 병설유치원) ▶ 김원배 교사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 이현령 교사 (한양제일 유치원) ▶ 최정희 교사 (유정 유치원) ▶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양도초 병설유치원) ▶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전주 유화학교)	Group 1 ▶ 함미영 교사 (알프하임 어린이집) ▶ 김윤진 교사 (홍제 어린이집) ▶ 김민지 교사 (아름다운 어린이집) ▶ 김은영 교사 (파랑새 어린이집) ▶ 최 철 유아특수교사 (시립숲속 어린이집) ▶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초록 어린이집)
Group 1 ▶ 윤지혜 교사 (운담초 병설유치원) ▶ 김원배 교사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 이현령 교사 (한양제일 유치원) ▶ 최정희 교사 (유정 유치원) ▶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양도초 병설유치원) ▶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전주 유화학교)	Group 1 ▶ 함미영 교사 (알프하임 어린이집) ▶ 김윤진 교사 (홍제 어린이집) ▶ 김민지 교사 (아름다운 어린이집) ▶ 김은영 교사 (파랑새 어린이집) ▶ 최 철 유아특수교사 (시립숲속 어린이집) ▶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초록 어린이집)		
	• 질의응답 : 온/오프 청중		
12:25~12:30	I 폐회 I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0차 정책토론회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2022. 12. 17.(토) 10:00 - 12:30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유튜브 채널 육아정책연구소TV

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프로그램

시간	세부일정
9:40-10:00	[등록] 등록 및 준비
10:00-10:10	[개회식] 사회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개 회 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10:10-10:30	 발제 1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 학부모, 유보통합을 말하다!
10:30-12:25	[교사, 유보통합 집담회] 퍼실리테이터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Group 1 윤지혜 교사 (운담초 병설유치원) 김원배 교사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이현령 교사 (한양제일 유치원) 최정희 교사 (유정 유치원)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양도초 병설유치원)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전주 유화학교) * 질의응답: 온·오프 청중 Group 2 함미영 교사 (알프하임 어린이집) 김윤진 교사 (홍제 어린이집) 김민지 교사 (아름다운 어린이집) 김은영 교사 (파랑새 어린이집) 최철 유아특수교사 (시립숲속 어린이집)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초록 어린이집)
12:25-12:30	폐회

CONTENTS

개회사 —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제 및 토론

- 발제 1 | 국민, 학부모, 유보통합을 말하다! 1
-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교사, 유보통합 집담회

Group 1

- ▶ 윤지혜 교사 (운담초 병설유치원) 17
- ▶ 김원배 교사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21
- ▶ 이현령 교사 (한양제일 유치원) 24
- ▶ 최정희 교사 (유정 유치원) 26
- ▶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양도초 병설유치원) 29
- ▶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전주 유화학교) 31

Group 2

- ▶ 함미영 교사 (알프하임 어린이집) 35
- ▶ 김윤진 교사 (홍제 어린이집) 36
- ▶ 김민지 교사 (아름다운 어린이집) 39
- ▶ 김은영 교사 (파랑새 어린이집) 42
- ▶ 최 철 유아특수교사 (시립숲속 어린이집) 44
- ▶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초록 어린이집) 47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육아정책연구소 제10차 정책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한 해 동안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KICCE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번 토론회가 2022년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그간 노력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토론회를 위해 축사를 해주시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님,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연내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고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하고,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와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이러한 과정의 일환입니다.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부모의 정책적 지지가 중요하고, 특히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의 자격과 처우의 문제는 이견이 많아 가장 어려운 과제이므로 현장의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하면서도 깊이있게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보통합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소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형별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좌장을 맡아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연구위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 윤지혜 운담초 병설유치원 선생님, 김원배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선생님, 이현령 한양제일유치원 선생님, 최정희 유정 유치원 선생님, 서지혜 양도초 병설유치원 선생님, 김혜영 전주 유화학교 선생님, 함미영 알프하임 어린이집 선생님, 김윤진 홍제 어린이집 선생님, 김민지 아름다운 어린이집 선생님, 김은영 파랑새 어린이집 선생님, 최철 시립숲속 어린이집 선생님, 강은주 초록 어린이집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입니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0차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축사를 해주신 김병욱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그 책임을 이웃과 지역사회, 국가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 환경에 따른 영유아 발달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교육계와 보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입니다. 이미 누리과정을 통해 3~5세 교육과정이 통합됐고 교육비와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유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관계부처의 이원화로 행·재정적 지원 체계와 지원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준비팀을 발족했을 뿐 정책 추진이 더딘 모양새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편차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국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을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특수와 장애영유아 파트의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보통합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논의된 고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0차 정책토론회,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에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주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와 집담회 사회를 맡아주신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중에도 유보통합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유아교육·보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각각의 시스템 성격과 주무부처, 교사자격, 재원 등이 상이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가 어디서 영유아 시기를 보내는지에 따라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불평등을 겪고, 부모의 경제능력에 의해 생의 초기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습니다. 특히 ‘유보통합’은 수십 년간 역대 정권이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누리과정’으로 교육과 보육 과정을 통합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공회전한 유보통합,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꾸준히 논의되고 실행에 옮기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최초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조직개편 중에 있으며,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교육이 이끄면서 돌봄과 복지가 협력하여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느 때보다 '유보통합'의 대한 관심이 높고 정부의 의지도 강합니다. 국민과 교육 수요자가 바라는 그림대로 '유보통합'이 실현되고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실 고견들은 매우 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유보통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되어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어디에 맡겨도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국가로 거듭나는데,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욱

발제 및 토론

국민, 학부모, 유보통합을 말하다!

발표자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22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0차 정책토론회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국민, 학부모, 유보통합을 말하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 창 현



1

PART 01

국민 의견: 빅데이터 분석 결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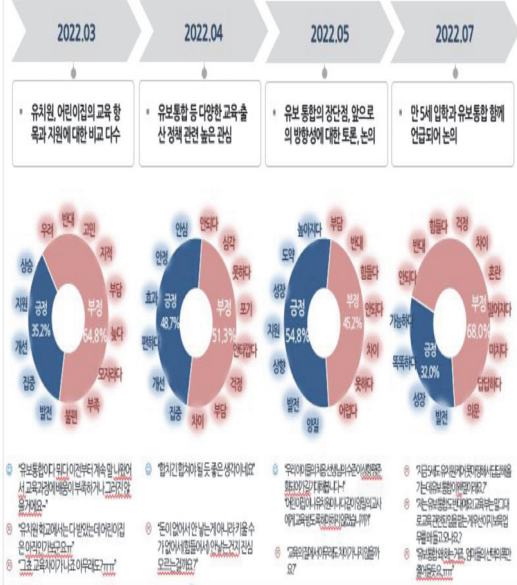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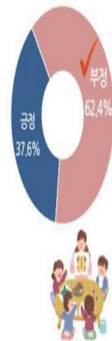
국민의견

유보통합 정책 관련 온라인 평판 : 유보통합 관련 긍부정 반응 및 월별 부정 비중 변화

[단위: 개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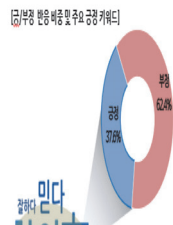
- 만5세 초등취학 정책과 연동
-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부정 여론에서 긍정적 여론으로 변화하는 추세 보였으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부정 비중- 7월 68.0%).



국민의견

긍정

- [전국 내용 선]
-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연계**
"고학년 수업을 그대로 유치원 공간 활용하고 교육의 질이 높고 좋은 아이들만 다니면 유치원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증가**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니까 돈도 내야 하고 교사도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유보통합을 하면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 질 높은 교육 제공**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에 더 좋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 줄 거예요. 유치원도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 공공보육에 대한 기대**
"공공보육도 돈이 많이 들어야 하고, 그래서 보육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공공보육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 아이들에게 균형한 교육 기회를 제공**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면 좋을 거예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면 좋을 거예요."



VS

부정

- [전국 내용 선]
- 유치원(어린이집)과의 연결은 어떤 교육의 질과 무관**
"유보통합이 될 경우 이 모든 자원을 몰려서 하는 것인데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 교육과 보육은 별개로 다르다는 의견**
"유보통합이 될 거예요. 유치원도 좋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 줄 거예요. 유치원도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 유치원 교육에 대한 우려**
"유치원 교육은 보육과 연결되는 것인데 유치원 교육과 초·중·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면 좋을 거예요. 유치원도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을 유치할 가능성 있음**
"유치원 교육은 보육과 연결되는 것인데 유치원 교육과 초·중·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면 좋을 거예요. 유치원도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 특수교육으로 전환 가능성**
"유치원 교육은 보육과 연결되는 것인데 유치원 교육과 초·중·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면 좋을 거예요. 유치원도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정리

첫째, 최근 1년간 유보통합 버즈량은 72,851건, 반면 8월 11일간 만 5세 초등취학 버즈량은 350,302건으로 온라인 맘카페 내 만 5세 초등취학 관련 관심도가 매우 크게 나타남.

유보통합은 만 5세 입학 발표 이전까지 버즈량이 10,783건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만 5세 입학 발표 이후 버즈량이 7만 건대로 급증하였음(긍정비중 - 3월 : 35.2%/4월 48.7%/ 5월 54.8%).

둘째, 유보통합, 정책 발표 이후 부정 여론에서 긍정적 여론으로 변화하는 추세 보였으나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음(부정 비중- 7월 68.0%).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교육 가능, 어린이집 지원 증가에 대한 기대 등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 반면, 부정 의견으로는 교사 일원화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유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 유치원 교사 역차별 논란 등이 있었음.

PART 02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의견

부모설문조사 결과(987명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양육자 대상)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2%,

들어본 적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48%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8.4%,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40.3%,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

* 유보통합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통합

1) 만 0-5세 교육부에서 모두 통합이 36.2%,

2) 만 3-5세 유아교육(교육부), 만 0-2세(복지부 또는 타부처)로 연령별 이원화가 33.5%

학부모 의견

* 영유아학교를 구축하게 될 때, 담임교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1순위와 2순위

- 소통하고 인성이 좋고, 전문성이 높은 교사

* 0-2세나 3-5세반 교사의 학력: 학사 학위 소지

* 부모들은 거의 절반 정도는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별다른 불편은 없지만,

- 기관 접근성이 편하고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하며 교직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

- 유보통합은 지금보다 더 나은 체제로의 전환, 개편의 관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학부모 의견

〈표 III-2-4〉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어 불편한 이유

항목	빈도(비율)
이름 가능한 연령 차이가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함	155(15.7)
두 기관 모두 만 3-5세를 담당하기에 기관 선택시 혼란스러움	160(16.2)
동일한 연령(만 3-5세)임에도 두 기관의 이용시간과 비용, 교사 등의 차이가 있어 불공평함	343(34.8)
두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 보조금 카드와 운영체계가 달라 기관을 옮길 때 불편함	178(18.0)
입학(입소)방식이 달라 구분해서 신청해야 함	118(12.0)
기타	33(3.3)
전체	987(100.0)

〈표 III-2-7〉 유보통합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화를 바라는 항목

항목	1순위	2순위
이용 가능 연령	69(7.0)	63(6.4)
부모 비용 부담	134(13.6)	144(14.6)
정부지원금액	122(12.4)	141(14.3)
연간운영예산(영학 등)	90(9.3)	90(9.1)
교사 자격기준과 처우 수준	231(23.4)	159(16.1)
교사료 영유아비율	225(22.8)	182(18.4)
시설 설치기준	38(3.9)	76(7.7)
기타	9(0.9)	30(3.0)
응답 없음	0(0.0)	43(4.4)
전체	987(100.0)	

4. 정책현안: 유아완전무상교육

〈표 III-2-11〉 (영)유아학교 구충시 가장 기대되는 점

	항목	1순위	2순위	
(영)유아학교 구충시 가장 기대되는 점	영유아의 교육권과 영등권 보장	157(15.9)	137(13.9)	
	상업영양아 의무교육의 실현	33(3.3)	34(3.4)	
	영생의 교원 시스템 구축	158(15.7)	156(15.8)	
	영아에 교육기능 강화	96(9.7)	88(8.9)	
	영유아단계 기반체제를 위한 기초를 구축(양성, 의무교육)	150(15.2)	170(17.2)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교육 실현	266(27.0)	210(21.3)	
	유치원 영의 일체 인정, 통합	43(4.4)	45(4.6)	
	미래세대를 위한 미래학교 체제 구축(다자립, 기충위 기교육 등)	60(6.3)	58(5.9)	
	기타	25(2.5)	20(2.0)	
	응답 없음	0(0.0)	87(8.8)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 구충시 가장 우려되는 점	영아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기존 보육 서비스의 유연한 연계	157(15.9)	182(18.4)	
	경직된 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우려	135(13.7)	190(19.3)	
	만 0-2세 수준이 가장연이입 등 가장보육사업의 학교 체제화	103(10.4)	162(16.4)	
	관제부처 협동의 유연한 연계가 제대로 실현되지 여부	208(21.1)	175(17.7)	
	영아는 교육보다 돌봄이 더 중요하므로	378(38.1)	189(20.1)	
	기타	8(0.8)	40(4.0)	
	응답 없음	0(0.0)	76(7.7)	
		전체	987(100.0)	

학부모 의견

〈표 III-2-6〉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찬반 입장 및 이유

항목		빈도(비율)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예	379(38.4)	
	그렇지 않다	398(40.3)	
	모르겠다	210(21.3)	
전체		987(100.0)	
항목		1순위	2순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모든 유아기 영등하게 교육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므로	106(10.7)	90(9.1)
	교원 자격을 갖춘 양질의 교사에게 맡길 수 있으므로	57(5.8)	62(6.3)
	정서적 통합을 통해 전일제제와 사제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므로	61(6.2)	65(6.6)
	부모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므로	27(2.7)	27(2.7)
	이용시간이 동일해지므로	19(1.9)	20(2.0)
	정부지원금이 동일해지므로	20(2.0)	20(2.0)
	교사별 아동비율이 동일해지므로	9(0.9)	17(1.7)
	이용가능한 인원이 동일해지므로(0.5:5A)	49(5.0)	30(3.0)
	교사의 자격과 책무가 동일해지므로	36(3.6)	27(2.7)
	기타	0(0.0)	0(0.0)
	소계	379(38.4)	358(36.3)
	응답 없음	608(61.6)	629(63.7)
전체		987(100.0)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현제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시간이 다양함	18(1.8)	13(1.3)
	현제도 선택할 수 있는 이용 비용이 다양함	12(1.2)	16(1.6)
	현제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32(3.2)	37(3.7)
	현제도 잘 높은 교사를 확보하고 있음	29(2.9)	22(2.2)
	현제도 시설비율이 좋기 때문임	10(1.0)	7(0.7)
	유보통합을 통해 현제보다 교육비용 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	164(16.6)	94(9.5)
	현행제 만족함	55(5.6)	48(4.9)
	기관의 다양성의 꼭질 줄어듦 것을 우려	72(7.4)	90(9.1)
	기타	5(0.5)	8(0.8)
	소계	398(40.3)	335(33.9)

항목		빈도(비율)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	응답 없음	598(59.7)	657(66.1)
	전체	987(100.0)	
	유보통합에 필요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음	73(7.4)	59(6.0)
	유보통합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많을 것 같음	21(2.1)	35(3.5)
	유보통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음	55(5.6)	33(3.3)
	정부의 유보통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61(6.2)	36(3.6)
	기타	0(0.0)	0(0.0)
	소계	210(21.3)	163(16.5)
	응답 없음	777(78.7)	824(83.5)
	전체	987(100.0)	

학부모 의견

〈표 III-2-9〉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11.4	17.0	33.4	29.3	8.8	3.07	1.127	
유치원	11.7	16.5	31	33.7	7.1	3.08	1.119	
어린이집	11.2	17.6	36	24.6	10.6	3.06	1.136	0.306

〈표 III-2-10〉 (영)유아학교 명칭 선호도에 따른 이유

항목		1순위	2순위
(영)유아학교 명칭에 동의하는 이유	교육부 산하 상급학교와 연계할 위해서 (영)유아학교로 불리는 것이 적당하다	71(7.2)	81(8.2)
	일제 전체를 천안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은 (영)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49(5.0)	52(5.3)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 학교 체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영)유아학교라고 불리는 것이 적당하다	173(17.5)	83(8.4)
	유아들을 위한 학교라는 명칭은 현행에 명시된 유아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강조하기에 적당하다	82(8.3)	80(8.1)
	기타	11(0.1)	0(0.0)
	응답 없음	0(0.0)	69(7.0)
	전체	987(100.0)	
(영)유아학교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학교라는 명칭 자체가 영아 돌봄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20(2.0)	31(3.1)
	학교는 공부만 가르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더 나은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시대에 맞기 때문에	41(4.2)	84(8.5)
	기타	10(1.0)	6(0.6)
	응답 없음	0(0.0)	83(8.4)
	전체	987(100.0)	

학부모 의견

〈표 Ⅲ-2-17〉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비율)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대한 입장	잘 추진될 것이다	337(34.1)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650(65.9)	
	전체	987(100.0)	
항목		1순위	2순위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잘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	유보통합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므로	128(13.0)	77(7.3)
	유보통합 정책(시행과정에)에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219(22.2)	178(18.0)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188(19.0)	157(15.9)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49(5.0)	50(5.1)
	정부의 정책추진력(속도와 방향 등)을 보다 높여야 할 것	54(5.5)	55(5.6)
	기타	12(1.2)	8(0.8)
	응답 없음	337(34.1)	467(47.3)
	전체	987(100.0)	
항목		1순위	2순위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에 잘 추진되기 위해 선행해야 할 것	핵심관계자등간의 정책 목표의 공유 및 내연화	67(6.7)	73(7.4)
	국(黨)의 합의 도출	161(16.3)	120(12.2)
	정부의 의지와 유능함	85(8.6)	97(9.8)
	유아교육과 돌봄, 양육을 포괄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 구축	241(24.4)	223(22.6)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갈등의 최소화	128(12.9)	115(11.7)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의 유능한 조정	97(9.8)	100(10.1)
	실행가능한 단계적 로드맵 제시	208(20.9)	192(19.5)
	기타	10(1.0)	3(0.3)
	응답 없음	0(0.0)	64(6.5)
	전체	987(100.0)	

3

PART 03

교사들은? 오늘을 기대하며~

[교사, 유보통합 집담회]

퍼실리테이터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Group 1

윤지혜 교사 (운담초 병설유치원)
김원배 교사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이현령 교사 (한양제일 유치원)
최정희 교사 (유정 유치원)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양도초 병설유치원)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전주 유화학교)

Group 2

함미영 교사 (알프하임 어린이집)
김윤진 교사 (홍제 어린이집)
김민지 교사 (아름다운 어린이집)
김은영 교사 (파랑새 어린이집)
최철 유아특수교사 (시립숲속 어린이집)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초록 어린이집)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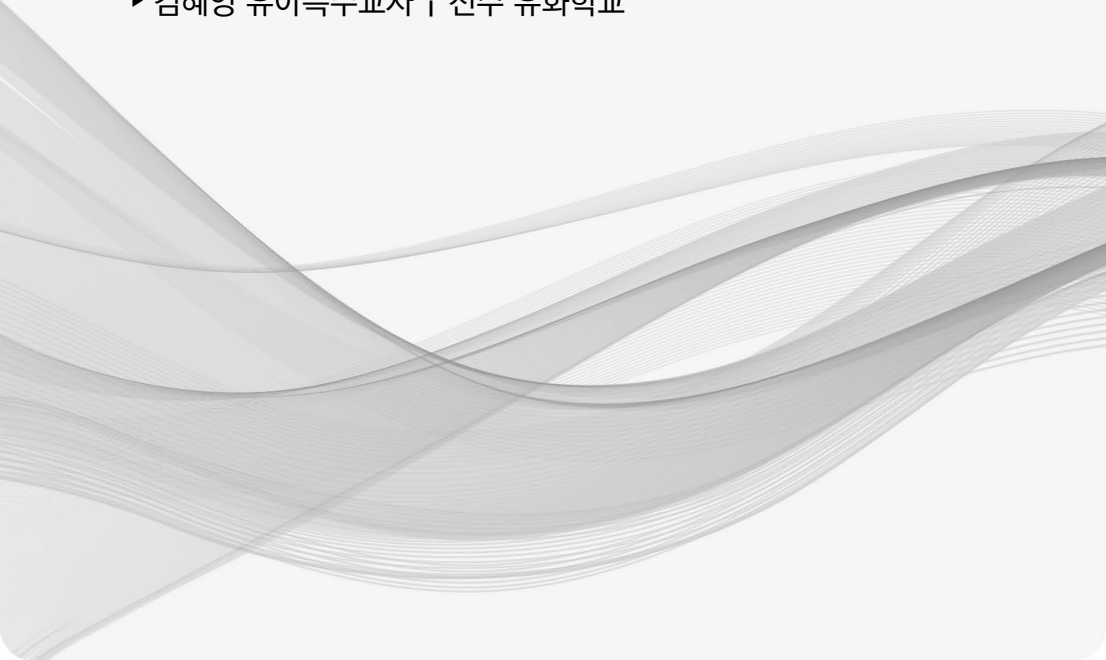
교사, 유보통합 집담회

Group 1

Group 2

Group 1

발표자

- ▶ 윤지혜 교사 | 운담초 병설유치원
 - ▶ 김원배 교사 |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 ▶ 이현령 교사 | 한양제일 유치원
 - ▶ 최정희 교사 | 유정 유치원
 - ▶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 양도초 병설유치원
 - ▶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 전주 유화학교
- 

국공립유치원교사가 바라보는 유보통합

: 영유아 발달단계와 교사 전문성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개편을 중심으로

윤지혜 교사 | 운담초 병설유치원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은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어린이집 취원 연령은 0~5세, 유치원 취학 연령은 3~5세로 같은 연령의 유아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서로 다른 기관을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다니게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 설립 목적¹⁾에 따라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으로 나뉘며, 영유아 발달단계, 교사자격 취득과정(교사 전문성) 등 매우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보육 기관에 따라 학비, 보육료 등 학부모부담금 차이도 크다. 통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9.8만원, 어린이집은 5.6만원이라고 한다. 비록 같은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교사의 양성체제와 자격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의 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같은 연령의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유형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유아’를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풀지 못한 과제인 ‘유보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개정을 시작으로 2019개정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관할 부처 통합을 통한 시설·설비 기준 정립(강화)과 재정(예산), 교사양성체제의 개편이다. 심한 진통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와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12월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관할부처를 통합함으로써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중심의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을 ‘복지’가 아닌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교사로서 매우 염려되는 바는 무엇보다 교사양성체계의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정책의 지속 시행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와 논의의 장에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오늘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II. 유보통합의 방향

1.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 (시설·설비 기준 강화, 관리·감독 강화, 행·재정 지원 통합)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교육부로 관할부처가 통합이 된다면, 당장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논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논의에만 그치지 않는 유의미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시설·설비 기준이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도 뒤따라야 하며, 행·재정 지원도 동일한 지원금으로 학부모부담금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부처 통합이 아니다. 교육과 돌봄(복지)의 통합이 아닌,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한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교육으로의 통합인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약 30여 년 전인 1986년에 유아교육, 보육과 관련된 3개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이후 10여 년간 재정, 교육과정, 교사양성체계 상향평준화(보육 1년/교육 2년→교육 3년) 등을 통합하였다.

2. 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 이후에는 2020년 10월 28일 발의된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740)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 필요하다. 일제 잔재의 청산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3~5세 유아의 공교육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여 상향평준화된 유보통합 이미지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초중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공존하듯이, 유아학교도 사립유아학교(법인)와 국공립유아학교가 공존하며 학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3. 연령 이원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이 설립목적인 유치원은 3~5세 모든 유아들을 위해 유아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이 설립목적인 어린이집은 0~2세 모든 영아들을 위해 ‘보육’을 하는 기관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같은 교육부 산하의 유-초-중-고 체제에서 영아-유아-초등-중등-고등 체제로 전화하는 것이다. 유-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학교급으로 구분된 것과 마찬가지로, 영아와 유아의 차이는 다른 학교급 간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4. 교사양성체계 개편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0~2세 보육교사, 3~5세 유아교사로 교사양성체계 또한 개편되어야 한다. 영아의 보육을 위해 영아전담 보육교사만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사만의 전문성도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부모 의견 조사(박창현, 황지선, 2022.)에 따르면 자녀의 담임교사로 바라는 학력 수준은 ‘4년제 대졸’이 43.82%로 가장 높다. 앞서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자격 상향평준화는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우리나라 학부모의 요구도 같은 방향이다. 교사의 양성체계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그 처우 또한 동일해 질 것이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양성은 4년제 사범대학(학과제) 이상의 학력을 기본으로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초중등 교사의 양성체계와 동일한 교육연한을 통해 교육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이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한다.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도 4년제 대학에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기존 보육교사자격 소지자 중 유치원정교사 자격취득을 원한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취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시간적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순한 사이버 연수나 보수교육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유아학교 교사로서 상향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은 교직이수와 유아교육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는 등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공무원으로 국공립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 절차에 따라 교사임용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유지해야만 교사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대학의 유치원교사 자격 발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자격이 남발되지 않고 유아교사의 질 향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5.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관찰부처, 유아학교 명칭, 연령 이원화, 교사양성체계 상향평준화를 통한 유보통합이 된다면, 그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온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통일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사 1인당 영유아 수는 전국 공통으로 만4세 이상이 최대 20명이

나, 유치원은 각 시도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이 상이하며 어린이집 기준보다 많게는 8명 이상인 경우도 있다. 해외 선진국의 교사 대 영유아 수는 10명 이하이다. 교육환경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유아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여 전국 공통 기준 적용이 매우 절실하다. 유치원교사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급당 유아 수는 만5세 기준 14명²⁾이고, 학부모는 10명³⁾이라는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Ⅲ. 맺는 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논의의 중심은 유아여야 하며, 초등학교 취학 전 양질의 유아교육은 유아학교에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아의 행복과 발달을 위해 유보통합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깊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 이후에는 0~2세 보육교사/3~5세 유치원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된 교사로부터 발달단계에 적절한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교사 없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학부모, 교사가 바라는 진정한 유보통합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2022). 유아교육 현장 실태 설문조사.

3) 박창현, 황지선(202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관한 부모 의견 조사.(현재 수행중인 연구자료의 일부)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김원배 교사 | 포일사과나무 유치원

1) 유보통합 찬성/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지점, 기대되는 지점

유보통합은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기에 유보통합을 위해 유아교육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단순히 유보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은 언제나 유아교육의 정체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스스로를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의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회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미 현장의 유치원 교사들에게 교육보다는 보육 중심의 돌봄이 강요되고 있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본다.

교사들은 본질적으로 교육적 행위를 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유아들을 단순히 돌보려고 교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교육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보육 중심의 통합의 방향이라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전문가 집단이 본인들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도 있는 일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이점이 유아교육계가 본질적으로 연령을 명확하게 구분한 방식의 유보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점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교육과 보육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긴 하지만, 유치원 교사로서는 기대보단 고민과 걱정이 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본질은 무엇? 유아교육/보육/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유보통합의 본질은 당연히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너무나 명확한 명제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부터 시도해 왔던 유보통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본다.

현실과 각론은 배제한 채 본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라고 본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어야 한다' 라는 명제를 거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또 어떻게, 얼마나 먹일 것인가'라는 방법론적인 접근에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유보통합의 본질보다는 유보통합의 우려와 걱정들의 각론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만해도 어린이집은 교실 내 cctv가 의무 설치인데 유치원은 의무 설치가 아니다.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유치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하면 유치원 교사 집단에서는 이이유 하나만으로도 유보통합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유아통합의 대한 본질의 합의보단 각론적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유치원은 이미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보육적 시스템은 제공하지 있지 못하다. 따라서 유아교육계는 유치원 교사에게 보육을, 즉 '돌봄'의 정의를 확대 해석하여 돌봄을 맡기고 있다. 이는 교육 중심의 유치원이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과 비교대상군에 놓이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에게는 보육교사와 같은 수준의 돌봄을 요구하고, 보육교사에게도 유치원 교사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에 대한 첫 출발점이 달랐으며 과정도 결과도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통합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에서의 돌봄에 대한 정의는 교사의 수업 시간 내의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한 행위로 국한되어야만 한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돌봄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수업 시간 외의 돌봄까지 교사에게 담당하라고 하는 실정이다. 시대적 요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위한 비용과 대가를 치루고 있지 않다. 돌봄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요구에 대한 비용과 대가 역시 마땅히 치러야 하지만 그동안 내가 봐왔던 유아교육계는 돌봄을 별도의 인력이 아닌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유치원 교사에게 돌봄을 담당하라고 하면 대체 어느 교사가 제대로 된 수업 연구를 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명칭, 연령별 구분 관련)

교육부 중심의 영아 학교, 유아 학교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영유아학교는 반대다. 당연히 연령별 구분이 선행되어야만 하고, 연령별 구분이 되었으면 명칭 역시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교사자격, 양성체계개편: 어떻게 개편되어야한다고 보는가?

연령별 구분이 된 상태에서의 유보통합이라면 교사 자격과 양성 체계 개편 역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기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연령별 구분 없는 유보통합의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 개편은 솔직히 말해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본다. 그만큼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의 자격증 체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사 자격에 대해

서 단순하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취득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육 교사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수료 없이 현장 재교육 연수로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의롭지 않을뿐더러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집단에서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5) 시설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시설 통합이 될까? 어린이집만 해도 설립 형태가 너무 다양하며, 유치원 역시 설립 형태가 다양하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부 무너트리고 새로 짓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통합한다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통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난 지금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매입형 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과 공립 단설유치원의 시설 설비의 양과 질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낄 정도이다.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은 전문가들은 연령이 아닌 개월 수로 나눈다. 이는 그만큼 영유아일수록 개인간 발달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연한 시설 통합이 아닌 연령별 구분과 시설 구분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통합은 이미 누리과정으로 문서상으로는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누리과정을 대하는 교사의 철학과 전문성은 현재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는 행재정 지원과 결부될 수 밖에 없다. 똑같이 8시간을 근무하는 세 사람이 있다고 치자. A교사는 4시간 수업에 4시간은 교육과정 연구와 수업준비에 매진한다. B교사는 5시간 수업에 1시간 돌봄, 2시간을 업무와 수업준비를 한다. C교사는 6시간 돌봄에 1시간 업무와 1시간 수업 준비를 한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A교사 역시 초중등의 수업시수 기준으로 보면 24시수 이상으로 다른 교사들보다 월등히 수업시수가 높다. 교사도 사람이다. 수업과 돌봄 시간을 제외라고 남은 시간 모두를 쉬지 않고 수업 준비와 업무에 매진할 수 없다. 학부모 상담만 하더라도 1일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 직군이 유치원 교사이다. 따라서, 행재정 지원은 결국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A교사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다고 본다.

6) 유보통합 미래 전망? 어떻게 될거라고 보는가?

상당히 회의적이다.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의 본질이 망각된 상태로 대다수가 원하는 장시간 돌봄 체제 위주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것이 지금의 유아교육이 처한 위치이며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라고 본다.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있을 뿐 거기에 유아들의 입장은 없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들을 위해 아이들을 기관에서 돌봐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지가 아니라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한다. 얼마 전 초점 잃은 눈빛으로 어린이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 아이를 우연찮게 본적이 있다. 유보통합의 방향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이현령 교사 | 한양제일 유치원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직 유치원 교사로서 본인은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바이나, 아직은 선부르다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근거로는 모든 유아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체계 안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유아에 해당하는 만 3세~5세 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이원화된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처 일원화를 통해 공교육 체계 하에서 평등한 교육을 보장받아야한다.

한편,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먼저, 영유아학교(가칭)에서 교육할 영유아의 연령을 정해야한다. 현재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는 만 3~5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유아도 3~5세이다. 개인적으로 만 0~2세는 법적으로도, 발달상으로도 교육보다는 보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는 유아학교(가칭)에서 교육하고 만 0~2세 영아는 지방 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영아돌봄시설(가칭)을 운영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만큼 양성기관에서 교사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하는지, 또 유아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발급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유보현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의 자격증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시설 및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문제이다. 어린이집은 33,246개, 2022년 기준 유치원은 8,562개에 해당한다. 양질의 유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당 담당 유아수를 줄인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남는 시설의 경우 앞서 말했듯 영아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재정 지원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이다. 현 정부가 교육부 주도의 유보통합을 발표한 이상, 유보통합은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이전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해왔던 일은 만 0~2세 영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만 3~5세 유아들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이후로 30년 동안 논의되어왔던 문제였으나 이해 충돌 등의 이유로 시

행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영유아 교육기관이 나누어진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 맞벌이 부모로 인한 돌봄의 부재 등으로 유보통합이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는 모든 이해집단, 부모, 유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보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최정희 교사 | 유정 유치원

1) 유보통합 찬성/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 기대되는 지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왔고 2025년 교육청으로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관될 예정이라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시기가 정해진 만큼 이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전환을 기대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과 교육 방향이 어떻게 얼마만큼 다른지 일일이 다 비교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변의 동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유치원 현장에서 오랜 시간 교사로 지내면서 각각의 특징적인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5세에서 시작된 누리과정 이 만3-5세로 확장되고 그에 따라 해당 연령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일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고는 하나 그것의 실제 진행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교사와 기관에 따른 개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동일 연령대의 영유아동이 평등한 출발을 보장받는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 또 정책발표가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막상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 현재 현장의 교사들에게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 당장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맞닥트리게 되는 교육 환경과 교사의 자격기준 그리고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차이에 대한 고민 등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본질은 무엇? 유아교육/보육/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명칭, 연령별 구분 관련)

각각의 명칭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아교육 :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보육 : 돌보아 기를
- 돌봄 :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물론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미는 각각을 분절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념을 포괄하되 돌봄의 개념까지 확장된 형태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영유아기에는 연령에 따른 발달의 차이가 크므로 전 연령을 한 곳으로 묶는 유보 통합이 아닌 만0세~2세 그리고 만 3~5세의 연령 이원화 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연령에 맞는 공간과 시설의 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한 연령의 영아들에게는 그 부분(돌봄)에 대한 케어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으로의 전환이 조금 더 필요한 연령의 유아들에게는 그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교사자격, 양성체계개편: 어떻게 개편되어야한다고 보는가?

연령별 이원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육교사가 동일한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것이 아니므로 교사들이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들도 보육을 할지 교육을 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0~2세는 보육, 3~5세는 교육의 연령 이원화로 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 합니다.

5) 시설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6) 유보통합 미래 전망? 어떻게 될거라고 보는가?

효율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는 다른 재정투입에 우선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교사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우선 책임지고 이후 문제를 해결해야 유보통합의 한 축인 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과 사기 진작을 통해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보육의 질을 담보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처우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의 한 축인 교사들이 유보통합으로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되며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해소되어야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진정한 유보통합이 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여유가 생긴 초등중교육 예산을 대학 교육에 투자한다는 취지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출산율 급감에 따른다고 유아교육비를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유아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저출산에 따라 유아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 특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화 되어야 하며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기 공교육 강화를 기대하며 -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중심으로 -

서지혜 유아특수교사 | 양도초 병설유치원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82년 유보통합의 개념적 일원화와 구조적 차원의 이원화가 시작된 이후 긴 시간 정부와 관련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이었기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보통합의 형태와 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보통합의 당위성, 유보통합의 개념,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박은혜 장민영, 2014; 장영인, 2014), 결국 유보통합의 이야기는 오늘의 토론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유보통합대상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논의에서 소외되었고, 최근에서야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며 유치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등에도 배치되어 있다는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립유치원의 유아특수교사로서 유보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

첫째, 유보통합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유치원, 특수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으며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부족, 학부모의 선택 등의 이유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어린이집 이용 시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육과 보육 기관의 차이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성격이나 운영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사 배치, 학급 구성이나 예산 문제와 같은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둘째, 유보통합 시행 초반에 겪게 될 시행착오로 교육현장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유아들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조기교육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게는 장애예방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에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 연도에 차이를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2025년 1월 교육부의 관리체계하에 유보통합이 시작될 것이고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들이 겪게 될 혼란은 볼 보듯 뻔하다. 따라서 유보통합 시행 초반의 혼란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와 관리자의 자격과 처우를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4년제 사범대 유아특수교육과를 졸업하여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치원 원장은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원장 자격을 취득하였고, 병설유치원의 교장과 특수학교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이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서 교장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동안 유보통합에서 교사의 자격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논점이었던 반면, 관리자의 자격 통일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경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학교(유치원)교사 간의 간극,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감), 병설유치원 또는 특수학교 교장(감) 자격 간의 간극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학부모에게 유보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아교육의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만5세 초등조기입학문제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보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유보통합으로 인한 통합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수많은 선행연구가 말해주듯 통합교육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연계 되는 교육적 효과는 상당하다. 본인은 지난 십여년간 전국의 수 많은 유아특수교사들과 함께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을 통해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속에서 질 높은 통합교육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체 8,607명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가 7,011명(8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과연령재원유아를 포함하여 총 11,842명 중 장애영·유아 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입소한 장애영·유아는 5,578명이, 장애전문어린이집에는 6,242명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교육보다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분리 교육을 받고있는 경우가 많다. 수치상으로도 알 수 있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교육 실행여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간극을 줄이고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유아특수교육의 정책은 유아교육의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유아특수교육의 상황에 맞게 수정과 조정을 거쳐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유아특수교육이 소외되지 않고 오늘처럼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논의하며 다양한 답을 함께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유보통합의 방향

김혜영 유아특수교사 | 전주 유화학교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최근 새롭게 대두된 이슈가 아닌, 20년 여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보통합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성의 사회진출, 저소득가정 영유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등 당시 사회의 현실적 필요성과 실리적인 동기에 의해 시작되다 보니 유보통합의 원칙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보통합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보통합 형태와 방식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갈등만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조부경, 2022).

2022 유보통합/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관련 인식 빅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학부모의 60%이상이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보육환경이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찬성하는 부모의 68%가 모든 유아가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기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유보통합의 정책의 직접 수혜 대상인 학부모에게 유보통합은 ‘기대’ 요인도 되지만, 동시에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그에 따른 심리적 저항과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국민이 유보통합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다각적으로 제공하지 못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의 평등과 개인 발달의 최적화를 목적에 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최선의 이익 추구라는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인지를 중심에 두고 유보통합시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유아특수교육의 입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학교’로서의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유아특수교육은 장애전담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특수학교의 유치부, 영·유아과정의 특수학교, 유치원의 특수학급, 통합유치원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0-5세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적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아(0-2세)에 대한 무상교육, 유아(3-5세)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의 이원화

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유아특수교육기관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 체제에서 영유아의 특수 교육대상자가 자신이 가진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을 다닐지라도 동일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 받았을까? “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아특수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간의 교육 여건의 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특수교육대상에게 양질의 보육과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초를 두고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의 제도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영유아학교’체제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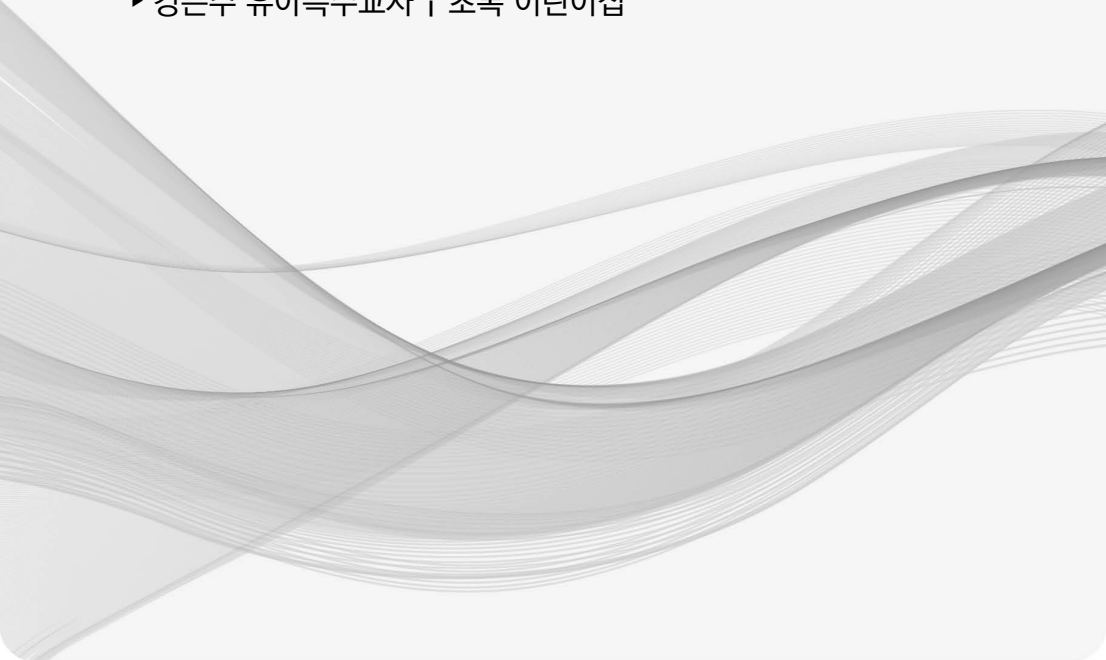
둘째,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양성체제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유아특수교사의 4년제 사립대학 졸업을 통한 특수교사(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관련법과 두 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3년제의 유아특수보육과와 3년제의 유아특수재활과를 통한 교원 양성이 가능하며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유아특수교육은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0-5세의 적기 특수교육을 통해 2차 장애를 예방하는데 중요성과 전문성을 가진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의 균질성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학력과 경로로 운영되는 이원화 체계를 일원화하여 시스템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원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교원 연수체제도 구축하여야 한다. 유아를 직접 지도하고 돌보는 교사에 대한 전문성이 지니는 가치를 재개념화 시키고 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영유아기 교사의 전문성이 보장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 관련 사무-예산법령의 교육부 소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 후 전면적인 법체계정비를 통한 유보통합을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유아특수교육대상 연령은 0-6세임에도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하여 12세까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생긴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였고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전면적인 법체계정비를 통해 일관성 있는 보호와 규제의 제도를 마련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 재원의 마련과 재분배를 통하여 양 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회계운영체계와 지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동안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공급자들의 이익과 입장을 고려한 외형적인 통합만을 추진한 결과 많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오랜 기간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영유아를 중심에 두는” 유보통합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Group 2

발표자

- ▶ 함미영 교사 | 알프하임 어린이집
 - ▶ 김윤진 교사 | 홍제 어린이집
 - ▶ 김민지 교사 | 아름다운 어린이집
 - ▶ 김은영 교사 | 파랑새 어린이집
 - ▶ 최 철 유아특수교사 | 시립숲속 어린이집
 - ▶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 초록 어린이집
-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함미영 교사 | 알프하임 어린이집

1) 유보통합 찬성/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지점, 기대되는 지점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본질은 무엇인가? 유아교육/보육/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모든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의 평등을 만들고 기관 중심 통합이 아닌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평등교육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면 유보통합 찬성.

관계부처 일원화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기 보다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모두에게 좋은 교육과 돌봄은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명칭, 연령별 구분 관련)

영유아놀이학교 : 개정누리과정은 놀이를 통해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놀이와 교육이 통합, 영유아보육놀이학교 : 돌봄과 놀이, 교육이 포함.

4) 교사자격, 양성체계개편: 어떻게 개편되어야한다고 보는가?

- 학과제와 학점제의 문제와 교원자격이 있음과 없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보육교사는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이수
- 유치원 교사는 영아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이수

5) 시설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시간제, 24시간, 공유어린이집 등 부모들의 상황에 맞게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과 유형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시설 통합 시 고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김윤진 교사 | 홍제 어린이집

본 토론자는 유보통합에 대해 교사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감사한 마음이며 현장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 유보통합 찬성/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 기대되는 지점

- 유보통합은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속적인 육아환경의 변화와 부모의 요구의 다양한 변화로 현재 거의 유사하게 교육/돌봄/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아이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원화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속적 연수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교사 처우나 환경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이듯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선부터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간의 자격이나 처우 등 근무조건이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 되고 교사의 재교육 및 통합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향후 보육교사 자격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1년 양성과정과 비대면 사이버대학과정은 폐지하고 정규 학력 과정을 통해서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시점입니다. 체계화되고 일원화된 교육과 동등한 교사 처우, 평등한 교부금 및 세금의 사용으로 모든 영유아들의 첫 학교의 든든한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본질은 무엇? 유아교육/보육/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 현재 어린이집에서 온종일 아이중심 놀이중심으로 생활하며 가족을 기다리는 영유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은 단지 아이들이 최소한의 돌봄만 받는 것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즐겁게 놀이하면서 인지 사고과정을 연계 확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교육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영유아기의 발달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우리 일상의 파격적 변화로 인해 유아교육의 방향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강조되었던 초등 준비교육에서 벗어나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즐거운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 함께 살아가는 능력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처음 학교인 유보통합의 시작은 영유아의 발달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 돌봄 및 보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보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그리고 보육교사를 돌봄 노동자로 보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이원화된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아교육은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보육이나 돌봄은 허드렛일을 하는 노동자일까요? 대한민국의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으로 보육을 비롯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놀이중심 아이중심으로 실천하는 교사는 보육교사이며 유치원 교사와 견주어볼 때 절 때 노동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저출생 인구절벽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행복하게 함께하며 그 가족과 사회가 더 나아가 발전하며 희망과 설렘이 있는 것!! 그것이 유보통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명칭, 연령별 구분 관련)

- 유아학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명칭으로 현재 유보통합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을 포함한 더 어린 영아들 또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원으로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와 맞춤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아학교/영아학교/영유아학교의 명칭 사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들의 혼선도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영아학교는 영아전문교사/ 유아학교는 유아 전문교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신설하고 재교육 및 이수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4) 교사자격, 양성체계개편: 어떻게 개편되어야한다고 보는가?

- 현재 보육교사 교육의 질적수준에 대해 폄하하며 예전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학력 수준도 양성과정을 비롯해 전문대 이상 졸업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이수자도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보통합을 하며 유아학교/영아학교/영유아학교 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전문선생님과정을 만들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양성체계를 개편하며 일정 경력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특정 과목 또는 학점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을 할 경우, 교원응시나 전문교사 자격 부여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보통합으로 다양한 교사들의 처우와 급여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유치원교사의 자격을 양성하기 위한 전공을 영유아교육과로 일원화하며 자격과정도 국가고시로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시설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유보통합 미래 전망?
어떻게 될거라고 보는가?

- 현재 전국 3만 9천여개의 어린이집과 국립유치원 포함한 유치원 8700여개소의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속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이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현재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의 전문교사 취득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검증된 교사들로 신뢰받는 교육과 보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통해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관들의 질적 평준화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 산하 유치원에 지원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평등하게 사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영유아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교육 평등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김민지 교사 | 아름다운 어린이집

1) 유보통합 찬성/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 기대되는 지점

유보통합에 찬성한다. 지난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유보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 추진단을 하루 빨리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유보통합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댓글들을 읽어보면 ‘쉽게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들이 4년제 학위를 취득한 유치원 교사가 되려고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만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유아반 교사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누리과정 연수를 통하여 누리과정 자격증을 취득한 후 유아를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또한 유아 교육에 대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발표자는 어린이집에서 10년째 유아반 교사로 재직중이며,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집은 보육기관, 교육보다는 돌봄을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으로 보육교사의 자격이 유보통합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2022년 4월 기준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는 552,812명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는 454,532명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이 보육만을 담당하며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45% 학부모들은 어떻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며, 영아를 보육하는 것과 동시에 유아에 대한 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관리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 학부모, 유아 모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사, 학부모 모두가 느끼는 부담감과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0~2세 영아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 또한 누리과정과 연계되어 영아들에게 전문적인 보육·교육 과정으로 지원되었으면 한다.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본질은 무엇?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유아들이 평등한 조건과 환경에서 보육,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 만 3세~5세 교육과정은 이미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0세~만5세까지의 영유아가 평등한 조건과 환경에서 연속적인 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보육/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유아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3~5세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공통으로 제공되는 누리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하는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유아를 교육하는 것에는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포함되고 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유아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명칭, 연령별 구분 관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을 뜻하는 학교라는 단어를 영유아기관의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다소 이질적이 느낌을 줄 수 있다. 영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 상 영아, 유아를 나누어서 구분 짓는 것 보다는 0~만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통합된 기관에서 평등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0세~만5세까지의 영유아를 연속적으로 보육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안정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상호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교사자격, 양성체계개편: 어떻게 개편되어야한다고 보는가?

어린이집의 교사의 경우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격, 학력, 이수한 과목 등이 다르다. 자격취득 기관이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통합 교사 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도 영아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한 재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5) 시설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현재 교육과정은 통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이원화로 인하여 영유아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루 빨리 주무부처 통합이 이루어져 행정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유보통합 미래 전망?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가?

보육계와 유아교육단체,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 통합을 통하여 보육·교육의 질,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사, 학부모 모두가 부담함과 불편함이 없는 교육기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김은영 교사 | 파랑새 어린이집

1) 유보통합 찬성/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 기대되는 지점

- 유보 통합을 찬성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으로 교육체계의 일관된 교육과정을 통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교사에게도 좀 더 나은 급여체제와 처우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어떤 교육내용을 적용할지, 이에 맞는 교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등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 본질은 무엇? 유아교육/보육/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유보통합의 지향점은 우선적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하고, 최선의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교육, 보육, 돌봄의 사전적 개념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교육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보육	어린이들을 돌보아 기르는 것
돌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

위 세 가지의 차이점보다는 이 모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유보통합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명칭, 연령별 구분 관련)

영유아 간의 발달 수준이 다른은 인정하고 영유아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일원화했다는 것은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연령은 발달 단계에 따라 '영아학교'(만0~2살), '유아학교(만3~5살)'로 현재처럼 나이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4) 교사자격, 양성체계개편,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는 미래의 영유아 보육의 질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유아는 어떤 환경에 보육되어야 할까? 당연히 전문(일정 기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도 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는 진입장벽이 낮고, 인터넷 과정만으로 자격증을 얻어 아이들을 보육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로서의 필요한 과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진입장벽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또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해 젊은 인재가 육성되기에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어린이집 근무환경 (교사대 영아 비율, 처우개선 등)의 개선이 시급하고, 이러한 환경이 개선될 때 영아 또한 좀 더 질 좋은 환경에서 보육되어질 것이다.

5) 시설 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시설 통합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각원의 원장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민간/가정/국공립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 어린이집 시스템으로는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전의 교사가 주도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현재는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육, 교육과정이 이전과 같이 개편으로 인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학교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재정 적인 지원도 이루어지면 원마다 있던 차이들이 통합되고 같은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져 부모들의 선택적 부담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교육, 행정적 문제들은 개선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된다.

6) 보육 통합의 미래 전망

요즘 청년들의 생각이 결혼과 육아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자신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자녀의 양육이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 기관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원마다 주장하는 원의 장점들을 일원화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생기는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줄이는 등으로 이미 공교육인 유치원도 학교처럼 공공성을 확보하고 동등하게 완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된다면 교사와 교육 기관의 상향 평준화로 교육의 질을 높여지고 영유아와 부모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최 철 유아특수교사 | 시립숲속 어린이집

1) 유보통합 찬성/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 기대되는 지점

유보통합은 예전부터 또는 정부가 바뀔 시점에 쟁점이 되고 실행에 옮기고자 다양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라는 목적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바로 영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교육 및 보육의 지원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같은 출발점에서 동일한 서비스와 교육적 환경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개념과 차이는 곧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의 사회적 인식 차이라고 생각된다.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련부처의 이원화, 교사의 양성 및 자격조건, 행정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 유보통합의 근본적인 해결점이자 목표로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과 교육지원의 형평성 차이를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은 필요하며, 유보통합으로 영유아들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간구되기를 기대해본다.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본질은 무엇? 유아교육/보육/돌봄의 개념은 무엇인가?

유보통합의 지향하고 있는 본질은 교육과 보육의 경계선을 나누지 않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에 의거하면 모든 영유아는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31조 충분히 쉬고 놀며 문화적 창작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보육이 구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장애통합반 학급 현장 안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하며 장애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의 개별적 발달특성에 따라 상호보완적인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안에서 보육과 돌봄의 선을 나누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 보육, 돌봄의 개념과 이상은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영위하며 한 영역으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또는 탄력적으로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유보통합의 실현의 목표의 기본을 영유아의 권리존중에서 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명칭, 연령별 구분 관련)

유보통합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는 나누어지는 명칭 보다는 하나의 부처가 관리로 영유아학교라는 통합된 명칭 사용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기관명칭 사용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지원을 공통된 출발선에서 시작됨을 명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되며 교육과 보육기관의 이원화 되어있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명칭의 통합 이전에 시스템통합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전담으로 하거나 영아와 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영아/유아를 구분지어 명칭과 시스템 관리를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연계성이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영아도 유아와 함께 보육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아의 긍정적인 교육 경험은 유아로 성장하는데 다양한 양분으로 적용되어진다. 이는 영아도 유아와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보육과 교육을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을 하나의 공통된 지원으로 통합되어 부모가 선택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동등한 출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교사자격, 양성체계개편: 어떻게 개편되어야한다고 보는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 자격조건은 유아특수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두 가지의 교사자격을 토대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유아특수정교사 자격 소지자만 인정되어 장애유아의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자격 조건의 이원화와 양성과정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 특수교육관련 8과목을 이수하여 현장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아특수교사와 양성과정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장애통합 어린이집 현장에서 10년 이상 유아특수교사로 재직하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교육지원의 경험은 양성과정의 강화와 보완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양성과정의 차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조건을 유아특수교사와 동일한 양성체제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특수관련 8과목을 단기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수하면서 전문성 심화과정을 연수받을 수 있는 양성체계개편이 요구된다.

5) 시설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같은 교육과정을 실현함에도 관련 부서의 이원화로 지원과 체계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

회를 통한 진단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지자체에 의뢰, 선정되어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그와 달리 유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별검사를 의뢰하여 각 기관에 교육배치를 통해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동일하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시설관리 통합이 이루어져, 장애영유아의 선별 및 진단으로 인한 배치 기준과 지침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통일성 있는 관리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배치 시 전문지원 인력배치,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현장에서의 기회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행정지원에 더 집중되어 있어 장애유아의 행재정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대 장애영유아의 비율의 차이를 줄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6) 유보통합 미래 전망? 어떻게 될거라고 보는가?

유보통합은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단시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통합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 있어 행재정 지원의 관련부서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유보통합의 전망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교사의 양성체계를 맞추어 나가는 시스템과 과정이 구축되어야 하며, 영아와 유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교육 및 보육하기 보다는 영아/유아의 교육의 연계성을 중점을 토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더불어 장애영유아의 지원관리체계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중점 구축하여 의무교육인 장애영유아 교육지원을 동일성있게 보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

강은주 유아특수교사 | 초록 어린이집

1. 유보통합 찬성 및 반대의견, 내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 기대되는 지점

- 유보통합에 찬성합니다.
- 법이 바뀌었을 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계도기간을 거치듯이 유보통합이 실시되었을 때 처음에는 많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텐데 성인인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감수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 교육과 보육의 동등한 입장이 아닌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낼 때 한쪽의 의견만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울게 되는 통합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되어있는 조기중재프로그램의 통합 및 개편으로 장애영유아들이 더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유아특수교사가 많이 필요하지만 처우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이 통합되었을 때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 유아특수교사들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일하는 시간과 양에 비해 열악한데 유치원 수준의 처우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개념

-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이 정의에 따라 제 개인적으로는 보육은 교육과 돌봄을 합친 더 큰 단위의 복지 서비스라 말하고 싶습니다.

3.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한 의견

-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교육부 소속이 되어 함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보육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4. 교사자격, 양성체계 개편

- 대학에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일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양성체계를 동일하게 변화하고 자격을 부여하면 교육 쪽도 보육 쪽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기존에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경력이 무시되지 않도록 자격검증에 있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시설통합, 교육과정 통합, 행재정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의견

- 처음부터 시설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되 시간을 두고 시범사업 등을 통한 시설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애유아를 위한 통합 및 전문 시설 또한 현재와 같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 0~2세 영아는 표준보육과정을 개편하여 사용하고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누리과정을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유보통합 미래전망

- 사실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쪽과 보육 쪽의 의견대립이 나타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해왔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간이 오래 걸릴 지라도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을 하는 목적,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MEMO

MEMO

[illegible]

MEMO

MEMO

국민, 학부모, 교사,
유보통합을 말하다!